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 명으로 확대

-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으로 외국인력 숙련화 지원 -

내년부터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 직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31일(화),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소재)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6개 조선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및 숙련향상을 지원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500여 명을 훈련할 계획이며, 사업주와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 내년에는 훈련 인원을 4,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고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관련 현장 목소리 ('23.8월)>

- “좋은 훈련환경에서 1개월간 무료로 훈련을 제공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덕분에 조선 분야 3종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회사의 이익에 오랫동안 이바지하고 싶음” <네팔 국적 수료생>
- “E-9은 기량이 낮아 단순 작업만 시켰는데 자격 취득 등 기량이 향상된 근로자가 많아져 현장투입에 큰 도움,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이 용이하여 현장관리자 만족도도 높음” <협력업체 사업주>
- “그간 외국인력은 기량이 부족하였으나,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는 직무능력은 물론이고 대인관계도 좋아 회사에 잘 적응. 자격 취득으로 자존감도 높아져 이직률이 매우 낮음” <협력업체 사업주>

향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하여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빨리(11월 중) 결정하고,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외국인력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입국 후 외국인력 특화훈련	재직 시 재직 중 훈련
현행	 베트남 등 송출국 현지에서의 기술훈련 (전기용접, CO2 용접 등)	 ‘직무·언어·문화’ 종합교육 조선업 시범 운영	 지게차·굴삭기 운전, 전기·전자, 자동차정비 등 5개 직종 훈련
개선	대상국가·훈련직종 확대 송출국 실습 장비 개선 및 훈련교사 역량 강화 ODA 확대	뿌리산업 등 타업종 확대	훈련직종 선호도조사 후 직종 확대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김남균 (044-202-7224)
		담당자	사무관	신유진 (044-202-7278)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책임자	과 장	최재운 (044-202-7735)
		담당자	사무관	이정석 (044-202-7223)

붙임 1**현대삼호중공업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23.10.31.(화), 16:00 ~ 17:40 ('100)
- (장소) 현대삼호중공업(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 (참석) 차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6개 조선사* 공동훈련센터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등
- *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
- (주요내용) E-9 특화훈련 시찰 및 조선사 현장간담회

<세부 일정>

장소	구분	시간		내용
본관	방문 기념식	16:00 ~ 16:20	'2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영사 및 인사말씀 ① 환영사 :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② 인사말씀 : 차관
				현대삼호중공업 공동훈련센터 소개 동영상 시청
	<본관 1층>			기념촬영
이동		16:20 ~ 16:30	'10	본관 → 기술교육원 이동
기술 교육원	훈련장 시찰 <실습동 1~2층>	16:30 ~ 16:45	'15	공동훈련센터 훈련장 시찰
	간담회 <교육동 1층 1강의실>	16:45 ~ 17:40	'55	6개 조선사 현장간담회

※ 행사 전체 공개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오늘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직업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발걸음 해주신 현대중공업 김동일 전무님과
6개 조선사 공동훈련센터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업계 동향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조선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E-9)을
역대 최대(12만명)로 도입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숙련인력 부족으로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력을 숙련화하여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E-9 특화훈련의 성과 및 훈련기관 격려

이러한 와중에
저숙련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무, 언어, 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이
긍정적인 현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훈련 수료생은
기술 자격 취득 등 향상된 기량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이직률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조기 적응과 역량향상을 위한
현대삼호중공업 등 6개 조선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선도기술을 전수하고,
협력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향후,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11월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국 전 - 후 - 재직 중” 훈련을
활성화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의
숙련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입국 전,
송출국 현지에서 2~3개월의
기능훈련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의
대상 국가를 3개 국가에서 7개 국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입국 후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현 조선업 외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4,000여 명의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직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직 중 외국인력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직업훈련」도
현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무리말씀

오늘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장과 맞닿아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입국 전] 송출국 현지 기능특화 훈련

- (개요) 기능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용접 등) 대상으로 송출국 현지에서 훈련* (2~3개월, 240H) 실시 후, 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선발
 - * ▲한국어교육(약 40H), ▲사전취업교육(45H),
▲기능훈련(160H): 제도, 금속가공, 가스절단, 전기용접, CO2 용접, 실무적응실습 등
- (추진현황) '22, 3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베트남), 용접 직종 훈련, 총 152명 수료 → '23. 7개국*, 훈련인원 400명 목표로 확대 추진 중
 - * 필리핀·파키스탄·네팔·스리랑카·라오스 등 5개국 추가
- (향후계획) 현지 훈련수요를 감안, 기능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용접 + 금형) 및 기능특화 훈련 참여국가 지속 확대 추진

② [입국 후 초기]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E-9 특화 훈련

- (개요) 원청사 훈련 인프라를 통해 E-9 입국 초기부터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
- (추진현황) 6개 조선사*에서 4월부터 시범사업 본격 개시 → 연말까지 5~6백명 실시 예상
 - *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대한조선
- (향후계획) 외국인 훈련 수요가 높은 뿌리산업 분야 중심으로 확대 → '24년 4천명 E-9 외국인력 훈련 추진

③ [재직 시] 재직자 직업훈련

- (개요) E-9 외국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기초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17년~)
- (추진현황) 주말 등을 활용하여 5개 직종(지게차·굴삭기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전자, 기계절삭가공)에 대한 교육 실시 중
 - * '22년 1,291명 실시 → '23년 1,430명 목표로 추진 중
- (향후계획) 금형, 도장 등 '24년도 신설 희망 훈련 직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훈련 직종 단계적 확대